

**방은호 대 선배님 영전에 올립니다.**

100 세를 사신 대 선배님께서서는 후배들에게 좋은 삶의 교훈과 모범을 보여 주시는 등 저희들에게 큰 역할을 해 오셨습니다. 그러나 2024 년 4 월 14 일 영면하시게 되어 이제는 더 이상 건강하셨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어 후배들 이 마치 **장수의 등대**를 잃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.

선배님께서서는 자상하시고 후배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많으셔서 대화가 끝날 때는 항상 "부인에게도 Say Hello 해 달라"는 말씀을 잊지 않으셨습니다.

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음악과 예술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습니다. 특히 음악 분야에서는 Korean Concert Society 등을 통하여 젊고 유능한 음악가들을 발굴 하여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음악가들로 키우셨습니다. 몇년 전에는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전시회를 계획하고 계신다 하여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.

또한 건강을 위한 열정도 대단하셨는데 마치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, 하시고 싶은 프로젝트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았습니다. 그 건강 비법 으로 두가지를 매일 실천하셨는데 그 비법의 하나는 무릎 굽혔다 펴기, 즉 스쿼팅을 매일 밤 취침 전에 30 번 이상을 하셨다고 하며, 두번째는 팔 굽혔다 펴기, 즉 푸시업을 매일 50 번 이상 하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선배님께서서는 상체 근육과 하체 근육이 모두 짱짱하게 튼튼하셔서 젊은 후배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.

한 25 년 전 경에는 Sligo Creek Golf Course 에서 제가 방 선배님과 rounding 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거리는 짧으셨어도 점수는 좋게 내셔서 놀란적도 있었습니다.

방 선배님으로 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배운 교훈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공유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. 저는 방 선배님께서 **음악과 예술에 대한 강한 열정, 건강유지에 대한 강한 열정**이 대단하셨기 때문에 장수하신 것이 아닌가 확신하고 있습니다. 방 선배님은 물론 인생을 오래 건강하게 사신 선배 분들을 관찰해 보면 각자가 예외 없이 **좋아하는 분야에 대단한 강한 열정**을 갖고 계시며 그 열정 이 건강 과 장수를 지켜 준다는 사실입니다.

따라서 **장수의 등대**를 대신하여 이제는 방 선배님이 지켜 오셨던 "**강한 열정의 등대**"를 우리들의 마음에 간직한다면 방은호 선배님을 기리는 뜻 깊은 날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.

**방은호 선배님, 평생 원하시던 천국에서 영면 하소서!**

2024.4.18.

**후배 오인환 올림**

**방은호 선배님 약력:**

- 1924 년 5 월 13 일 생
- 1937 년 배재고 입학, 졸업
- 1942 년 경성제국대학 약학전문원 입학, 졸업
- 1947 년 감리교재단 아펜러 장학생으로 도미
- 1948 년 시카고 일리노이 약학대학 입학, 졸업
- 1972 년 김경애 여사와 결혼
- 1980-2008 년 코리안 콘서트 소사어티 설립, 회장으로 많은 음악영재를 발굴 및 후원
- 2024 년 4 월 14 일 100 세 장수 영면

